93.7.24 한겨레

종군위안부 證言 직접청취
日정부조사단 26일 첫來韓

일본 총리부와 외무부 관계자들이 종군위안부들의 직접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26일부터 사흘간 용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2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유족회와 일본 정부 양측은 이번면담이 공정하게 진행될수있도록 비디오촬영을 허용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민간참관인을 일회시키기로 합의했다』며『이번면담후 종군위안부에대한 일본정부의 제2차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될것』이라고 말했다.

종군위안부진상조사와 관련, 일본 정부가 정부차원의 공식조사단을 한국에 보내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